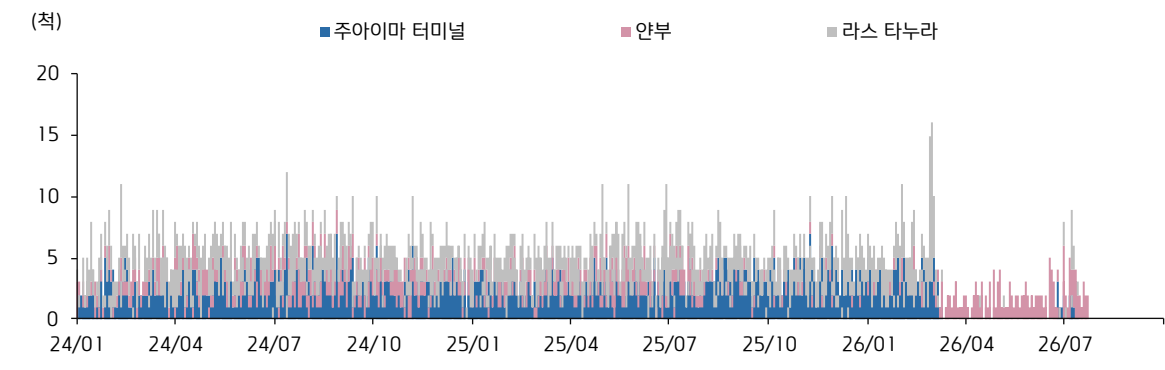




원유시장, 공급 불안 가중

사우디 주요 항구별 운항 선박 수(일간)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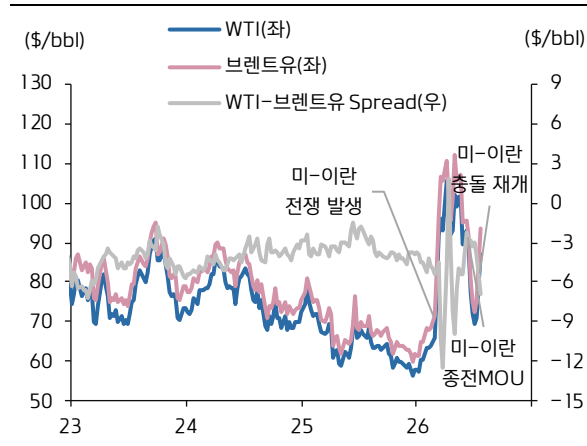
국제유가, 중동 정세 불안 확대 속 급등

최근 국제유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재개. 7월 초 WTI기준 배럴당 68달러 선까지 내려갔던 유가는 전일 기준 92달러 선으로 상승.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봉쇄되었기 때문. 7월 초 발생했던 유가 급락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걸프 산유국의 공급 정상화 기대에서 기인한 만큼, 공급 불안이 다시 높아지는 국면에서 유가는 최근 하락을 빠르게 되돌리고 있음. 특히 이번 주 유가의 추가 강세는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 이후 선박 공격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단. 과거 2023년 말에도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단기 반등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걸프 산유국의 생산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서 공급 충격이 단기에 그쳤음. 반면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된 가운데 홍해가 사우디 원유의 주요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되고 있어, 홍해 정세가 원유 공급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당시보다 클 수 있음.

실제로 우회 수출로가 없는 이라크와 쿠웨이트와 비교했을 때, 사우디의 원유 생산 및 수출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흐름을 보였음. 따라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된 상황에서 홍해 운항까지 제한된다면, 사우디 산유량이 2분기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 존재. 이는 사우디의 우회 수출 여력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우디 원유의 아시아향 수송이 재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아시아향 선박은 통상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거쳐 인도양으로 이동하나, 해당 항로가 제한될 경우 수에즈운하와 지중해 등을 경유하는 장거리 우회로가 필요함. 이는 운송기간과 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사우디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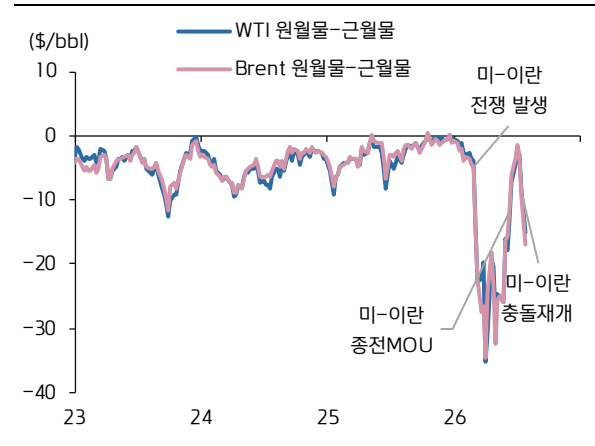
현재 원유 시장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중재국을 중심으로 미-이란의 10일 임시 휴전도 언급되는 상황. 만약 임시 휴전이 성사될 경우 유가는 빠르게 최근 급등세를 일부 되돌릴 수 있음.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선박을 재차 공격할 경우 이란에 대규모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는 등 확전 우려를 자극. 따라서 높아진 유가 상방 리스크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미-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해상 운송이 점차 회복되는 흐름이 확인될 필요.

최근 국제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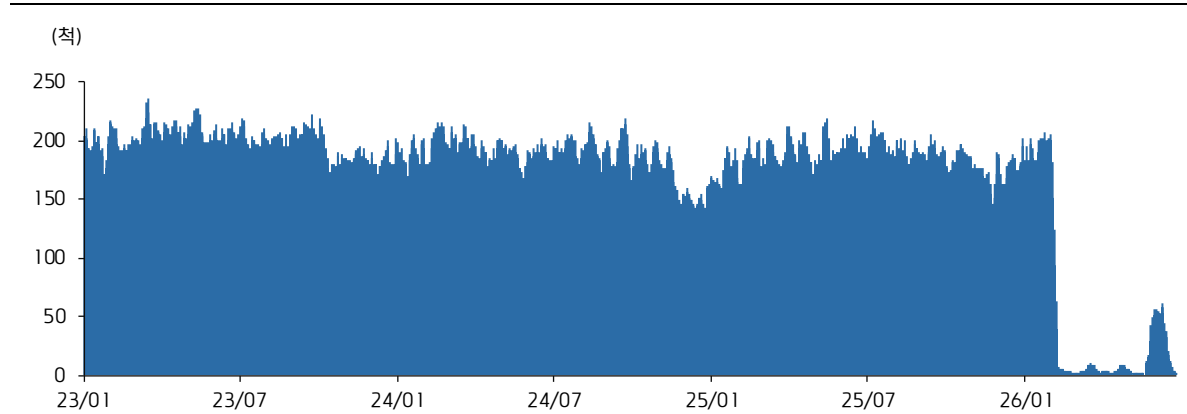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WTI, 브렌트유 원월물-근월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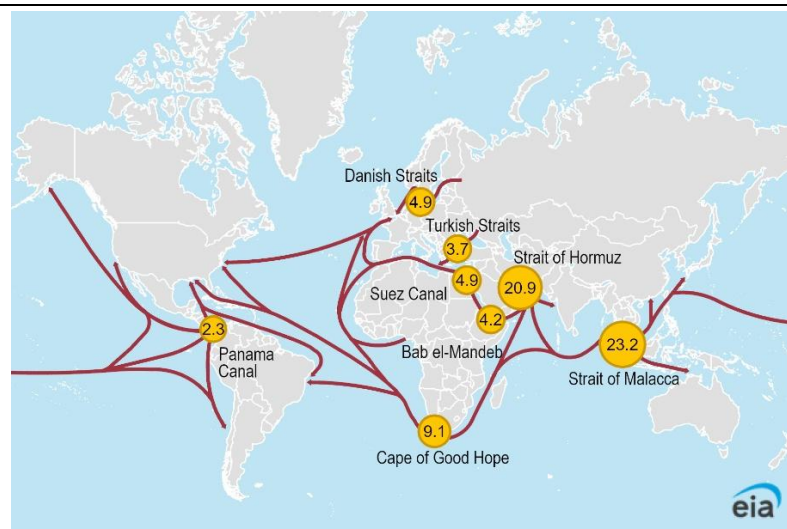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호르무즈해협 통과 선박 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세계 주요 해상 원유 수송 요충지를 통과하는 석유 및 기타 액체연료의 일일 물동량 (2025년 상반기 기준)



자료: EIA / 주: 단위는 mb/d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